

진행성 암 환자의 진단통고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¹, 보바스 기념병원²

양 수¹ · 박진노²

우리나라에서 암을 처음 진단한 뒤 일반적으로 환자의 가족에게 먼저 병명통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지, 언제 알려 주어야 하는지에 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사들간에 암 진단명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언제 어떻게 통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직 명확한 지침이나 권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에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환자에게 암 진단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으며, 현재 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보호자가 반대하는 입장이며, 대체로 통고자로 의사를 보호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통고과정에서 서양과 다르게 가족의 역할이 많이 개입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입장에서 임종에 가까울수록 병명을 모르는 편이 낫지 않았는가 하는 결과들도 있어왔다. 또한 임상에서 환자의 예후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설명을 들은 보호자들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입장을 보이므로, 진단 당시 예후가 불량한 전이성 병변의 암을 가진 환자들에서 병명통고는 하는 것이 좋은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병명통고자를 누구로 할 지를 전이성 병변을 가진 말기 암환자들과 가족, 관련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따로 조사하여 전이성 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진단통고가 환자들의 임종준비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에 착수하였다.

전이성 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진단통고에 관하여 환자, 가족, 의료인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환자들의 임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 내과에 입원 하였거나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전이성 암으로 진단되거나, 전과 및 전원된 환자 중 병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환자 50명과 대상 환자의 주 보호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도 대상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관련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임상실습중의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도구는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했는데, 설문지는 환자용, 보호자용, 의료인용으로 구성되며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의 1명, 간호대학 교수 1명, 수련의 1명, 간호사 1명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다

연구의 목표는 환자, 가족, 의료인을 대상으로 전이성 암 환자의 진단통고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알기 전후에 의견 및 감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며, 환자에게 진단을 통고하기 전후 가족과 의료인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병원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진단명을 아는 상태여서 진단명 통고 전 후의 차이를 조사할 수 없었다.

설문작성은 보호자 설문작성 후 환자설문작성을 하여 보호자가 환자 견해에 좌우되는 오염 인자를 피하고자 노력하였고, 설문 작성, 기록은 대상자가 직접 하며 작성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간호사의 도움 하에 실시하였다. 단, 가정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가 설문지 작성시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환자 50명, 가족 46명,

의료진 51명, 의과대학생 50명, 간호대학생 50명 등이 었다. 환자에게 병명 통고를 찬성한 비율은 환자 98%, 가족 88%, 의료진 90.2%, 간호대학생 94% 였으나 의과대학생은 73.2%로 가장 낮았다. 병명 통고를 추가하 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는 모든 대상 군에서 의 료인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병명 을 통고하는 시기로는 대부분이 진단 즉시라고 대답하 였으나 의료인들은 치료시작 직전에 하자는 의견도 많 이 보였다.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환자들은 91.6%가 모 든 것을 단번에 정확히라고 대답하였으나 나머지 다른 대상 군에서는 서서히 조금씩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과거의 조사결과에 비하여 이번 조사의 결과로는 점차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진단명을 알기 원하며 의료

인들도 점차 많은 비율로 환자에게 병명을 통고 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환자 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실제로 많은 사 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 일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인들도 점차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들이 자신의 병 상태에 대하여 정 확히 아는 것이 치료의 부작용을 인내하고 병의 경과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환자와 가족들은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가 병명 을 통고해주기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의료 인이 가장 병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다 고 믿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